

제11권 23호

2021. 11. 8~2021. 11. 21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마이데이터, 비금융 영역까지 확대 필요 |
| 이슈분석 | 빅테크와 은행의 협업 확대 필요성 |
| 금융경영브리프 | ESG열풍 속 그린워싱(Greenwashing) 주의보
글로벌 녹색금융 확대에 따른 해양금융의 변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대외 이벤트 일단락, 국내시장 안정세 주시
외 환: 인플레이 우려 낮아졌으나, 또 다시 미국 우위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윤병수(hybs)
연구원 김효섭(hyosupk)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윤지선(jisun.yun)
연구원 김종현(jh.kim)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마이데이터, 비금융 영역까지 확대 필요
- 04 **이슈분석** 빅테크와 은행의 협업 확대 필요성
- 08 **금융경영브리프** ESG열풍 속 그린워싱(Greenwashing) 주의보
글로벌 녹색금융 확대에 따른 해양금융의 변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대외 이벤트 일단락, 국내시장 안정세 주시
외 환: 인플레이 우려 낮아졌으나, 또 다시 미국 우위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마이데이터, 비금융 영역까지 확대 필요*

김 남 훈 연구위원(zec89@hanafn.com)

금융 마이데이터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결정권을 개인에게 넘겨줌으로써 향후 소비자들에게 보다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다만 통합조회기능에 보다 더 기대가 큰 이용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의 정보전송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데이터의 집중화 및 불균형의 우려에 대한 정책 및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과 마이데이터

바야흐로 데이터가 모든 것을 먹어 삼키는 시대이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언택트 환경 속에서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은 '20년 59제타바이트로 '16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향후 '24년까지 149제타바이트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21년 다보스포럼에서 예측한 것처럼 팬데믹 이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엮어서 초개인화, 마이크로 커스터마이제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을 주도할 트렌드 보고서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 및 활용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금융, 의료 및 상거래 등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해 맞춤형 상품·서비스 추천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통합된 개인 정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개인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원이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축사회’ 시대에 ‘萬人萬色’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업은 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IT 역량을 갖춘 빅테크(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도 마이데이터 시장의 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폭증 시대에
개인화 요구는
지속되는 트렌드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시대에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비금융 데이터와의 결합이 마이데이터 가치를 차별화

주거 선택 기준은
집값이 아닌
거주비용이므로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자가 거주를 선호

다만 현재의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비금융 데이터까지도 포함되어야 사용자 관점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나’에 대한 입체적 이해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마이데이터 관련 국내 한 설문 조사에서도 ‘나의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69%) 효용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맞춤 상품 및 추천에 대한 기대감’(2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미 마이데이터를 시작한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 공공, 소셜, 엔터 등 비금융 데이터까지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는 PDS(개인데이터저장소)나 정보은행(日)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필요 시 정보 공유에 따른 편익을 제공받는데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마이데이터
성공사례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

예를 들어 개인정보 통합관리와 제3자 데이터 제공이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영국의 Digi.me가 있다. Digi.me는 금융(바클레이즈, 씨티 등) 뿐만 아니라 소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의료(영국NHS), 헬스케어(핏빗, 가민 등), 엔터(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의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은 클라우드(PDS)에 정보를 저장하고 원하는 정보만 공유하며 제휴 기업들은 Digi.me를 통해서 금융外 필요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편, 영국이 데이터 수집, 저장, 공유 순과정을 주도하는 모델이라면 일본은 정보은행이 PDS를 제공하되 개인은 건강, 교육, 금융, TV시청정보, 개인 행동이력, IoT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사용을 위임하고 정보은행 사업자가 기업에게 제공해 얻는 수수료, 포인트 혹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민감한 의료정보라도 익명·가명처리하면 Opt-Out(사후 동의)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전송요구권
범위를 확대할 예정

국내에서도 아직 실증사업형태지만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과 일상의 결합을 모토로 은행, 통신, 교통 데이터 관련 6개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니’나 금융, 헬스케어, 통신을 결합한 LG CNS의 ‘라이프 매니징 서비스’ 같은 ‘금융+비금융’ 마이데이터가 그러한 예이다. 향후 통합적인 정보 조회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효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신용정보에 국한되

던 이동권의 통신, 의료, 공공 영역으로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상위법인
개보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 국한되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향후 비금융 영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투명성과 신뢰성, 보상체계가 마이데이터 확산에 필수

금융부터 시작하는 마이데이터가 비금융 영역까지 확대되고 정착하려면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정보은행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19년 내각부의 조사¹¹⁾에 따르면 78%가 정보은행 이용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인데
이터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과 보상의 불충분성 등을 이유로
이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들이
관심이 없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노출이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났
다. 이를 볼 때 고령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의료, 헬스 데이터 등 활용성이
높으나 민감한 비금융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용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투명한 유통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초기 마이데이터의 안착
에 중요하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생성의 주체에게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정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산업적 활성화 차원에서만
검토된다면 이용자 확대가 쉽지 않다. 맞춤형 자산관리 및 상품 추천 등에
아직 높은 기대를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수익 공유나 리워드 등의 보상을
통해 데이터 공유에 따른 통합조회서비스의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범위가 비금융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산될수
록 통합된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대 사업주체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및 불균형과 빅브라더의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다.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독점에 대한 최근의 반독점 규제
논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 및 감독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균형 잡힌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가 중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도 초기
서비스 안착에 필수

거대 사업주체의
데이터 독점 및 쏠림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제도와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AI Trend Watch, 2020.5

빅테크와 은행의 협업 확대 필요성

김지현 연구위원(jihyunkim@hanafn.com)

빅테크와 금융사간 협업이 상품 판매를 위한 제휴 마케팅을 넘어 공동 금융상품 개발 및 기술 협력 등 전략적 협업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빅테크와의 협업은 손님 유입을 증가시키지만 유입손님의 추가 거래를 유도하지 못하면 높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나 빅테크는 이미 편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 중심의 중요 금융거래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빅테크와의 마케팅 협업을 지속하는 한편 서비스형뱅킹(BaaS) 등을 이용한 협력형 신규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등 빅테크와의 경쟁과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빅테크와 금융사의 마케팅 제휴로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비중이 확대

- 국내 빅테크들은 송금 및 간편결제시장을 시작으로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수신, 대출, 투자 상품의 판매로 금융 취급영역을 확대 중
 -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를 연계한 은행 요구불계좌, 예적금, CMA계좌,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의 제휴 금융상품을 판매
 - 카카오뱅크의 증권사 연계 주식거래계좌 누적 개설건수는 약 430백만좌(21.2Q)
- 저축은행의 경우 빅테크를 통해 유입된 신용대출이 2년 새 20배 급증하며 전체 신용대출의 18.8%를 차지해 점포 수와 고객유인이 적은 저축은행의 생존을 견인
- 금융사 자체 채널만으로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적이기에 비대면 상품 판매를 위한 빅테크와의 마케팅 제휴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될 전망

■ 빅테크의 제휴 금융상품 판매 현황

	네이버	카카오
결제 송금	(네이버페이) - 간편결제송금	(카카오페이) - 간편결제송금 (카카오뱅크) 송금
수신 대출	(네이버파이낸셜) - CMA통장-미래에셋증권 - 신용대출-미래에셋캐피탈 - 요구불계좌-하나은행	(카카오뱅크) - 예적금, 대출
투자	(네이버페이) - 증권계좌-삼성증권 (네이버파이낸셜) - CMA계좌-미래에셋증권 - 주식, 펀드, ELS 판매 예정	(카카오뱅크) - 증권계좌-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키움 - 제휴 펀드 투자 - 자산관리 서비스 계획

자료 : KIF

■ 저축은행 유입 경로별 신용대출 규모 추이



주 : 상위 10대 저축은행 대상
자료 : 금융감독원

■ 최근 금융사의 빅테크와의 협업형태는 단순 판매마케팅을 넘어 플랫폼 이용자를 타깃한 금융상품의 공동개발과 기술협력을 통한 디지털혁신 추진 등 전략적 협업으로 확대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제1금융권 최초로 네이버 온라인 판매 개인사업자 46만명 ('21.1H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출시('21.7월)
 - 네이버 앱에서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신청, 승인을 거쳐 '우리Won뱅킹 기업'에서 계좌개설을 포함한 대출 약정까지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 또한 우리은행은 네이버와 소상공인 특화 교육과정 공동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에게 각종 혜택 제공과 함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및 고객유도 예정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네이버부동산과 연계해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런칭을 준비중이며 매물 검색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지방은행) 지방은행들은 디지털혁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금융상품 차별화를 위해 빅테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는 추세
 - 전북은행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신기술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데이터,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며, 네이버파이낸셜과도 업무제휴를 통해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 상품 개발, 기술 협력, 마케팅 제휴 등을 진행할 계획
 -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

■ 빅테크와의 제휴 확대는 유입 손님을 증가시키지만 유입 손님의 주거래화 유도 실패시 높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리스크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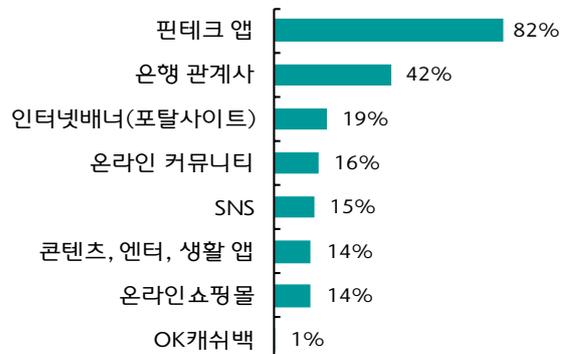
- 본 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휴마케팅으로 유입된 손님 중 주거래손님으로 전환한 비중은 5.5%, 상품구매 등 추가거래를 한 손님은 24.2%로 집계
- 제휴마케팅 유입 사유로 작용하는 혜택 이벤트는 우대금리, 주식 1주, 포인트 추가 적립, 제휴처 포인트 적립, 온라인 쇼핑 할인 혜택 쿠폰 순으로 선호

■ 우리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조건	입점 6개월 경과, 3개월 연속 매출 50만원 이상, KCB CB 691점 이상 및 NICE CB 751점 이상
한도	4000만원
금리	연3.29%~11.72%
대출기간	1~5년,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의 경우 최대 3년, 만기일시상환 및 통장식상환의 경우 최대 1년
우대금리	매출금액을 우리은행으로 입금시 0.4%
	월 1백만원 이상 입금시 0.1%
	우리사장님e편한통장 가입 0.1%
방식	통장식상환(마이뉴스통장)선택시 가산 연 0.5%
방식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마이뉴스통장 중 선택식

자료 : 네이버

■ 제휴마케팅 가입자 유입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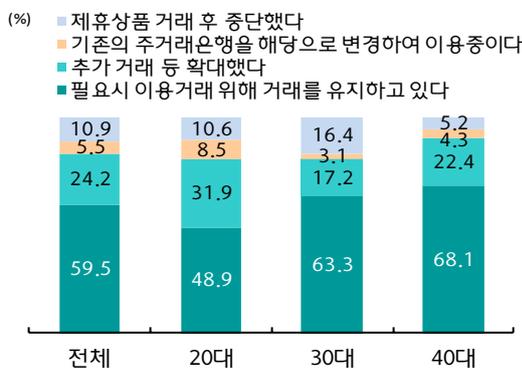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빅테크에 대한 상품 판매수수료 비용까지 고려하면 유입 손님에 대한 빅테크 제휴마케팅 비용은 매우 높은 편
 - 카카오뱅크 수수료 수익('21.1H) : 카드수입수수료 683억원, 연계계좌수입수수료 183억원, 연계대출수입수수료 142억원
- 유입 손님이 제휴은행과 지속 거래하는 주요 요인은 채널 이용 편리성(42.0%), 이용경험이 있어 친숙함(32.7%), 상품 경쟁력(28.7%), 혜택의 우수성(26.5%)순으로 답변해 재무적 요인보다는 거래 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

■ 특히 경제 주력인 MZ세대는 빅테크를 이미 중요 거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은행은 빅테크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자체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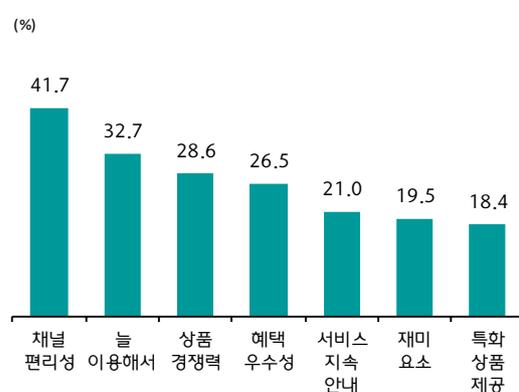
- 국내 MZ세대가 생각하는 중요 금융기관(1,2,3순위 합산 기준)은 카카오뱅크 43.8%, 네이버페이 38.2% , 시중은행 37.7% 순으로 응답해 빅테크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안착
 - MZ세대 주거은행 이용현황 : only 전통은행 20.0%, 인터넷전문은행+전통은행 79.4%, only 인터넷전문은행 0.6%
- MZ세대의 주거은행은 전통은행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빅테크의 이용 편리성과 간결성 때문에 향후 이용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
 - 전통은행은 급여통장, 인터넷전문은행은 조회 및 이체 용도, 핀테크는 송금결제와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 부가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활용
 - 기존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MZ세대(70.2%) 중 15.8%가 주거은행을 카카오뱅크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며, 52.8%가 반반이라고 응답
- 따라서 MZ세대의 자금관리, 투자, बैं킹 등의 금융니즈를 충족시키며 생활금융서비스 영역도 넓혀 은행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과 서비스 범위를 강화중

■ 국내 금융회사의 IT 인력 비중 변화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휴 마케팅상품 가입후 거래 유지 이유(중복응답)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은행들은 은행 앱내 계열사의 주요 금융서비스를 통합하여 손님 편의성을 개선하고 쇼핑 쿠폰 등 생활금융서비스도 제공

- 최근 금융위가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은행 슈퍼앱 구축시 플랫폼 경쟁력은 빠르게 개선 가능

■ 또한 오픈 API기술로 모듈화하는 서비스형뱅킹(Banking-as-a-Service, Baas)을 이용해 은행과 빅테크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수익모델 구축도 적극 고민할 필요

- BaaS를 통해 은행은 제휴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고, 새로운 손님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며, 제휴기업은 은행업 라이선스 및 투자 없이도 서비스에 필요한 은행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이 가능
 - BaaS는 은행이 서비스 기능 단위로 모듈화하여 비은행기업에 온디맨드(주문형) 형태로 제공하는 하는 서비스
- 국내 BaaS 관련 금융서비스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수수료 모델 확보 및 빅테크·핀테크 고객 유입, 이종업종 제휴 확대 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검토 필요
 -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금융업무를 지원할 예정
 - 우리은행은 BaaS를 통해 이종업종과의 디지털제휴를 추진할 계획 

■ Baas 서비스의 유형 및 사례

유형	사례
자기 브랜드 금융상품 제공	- Green Dot은 Green Dot Bank의 모바일 뱅킹 기능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Stash, Uber 체크카드, Intuit가 이 서비스를 사용중 - StoneCastle의 지역은행으로 핀테크 회사인 Q2와 제휴하여 예금 플랫폼 Cambr 서비스를 출범
BBVA는 BaaS 플랫폼을 미국에서 제공	- BBVA가 제공하는 뱅킹솔루션은 신분확인, 자금이체, 계좌개설, 카드발급으로 자금관리 핀테크 Simple, Azlo, Xero, Digit 등의 서비스를 활용
Green Dot의 BaaS 서비스	- 스포츠상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체육인에 할인되는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체육인은 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
핀테크사의 체크카드 발급	- 핀테크 회사들이 소형은행과 제휴하여 체크카드를 발급
대출을 위한 자금 제공	- WebBank와 Petal(신용카드 발급하는 핀테크), Sutton Bank와 BREX(간편결제, 예금, 신용카드 제공 핀테크), cross river와 affirm(선구매후결제 서비스 제공 핀테크) 등

자료 : CB Insights

ESG열풍 속 그린워싱(Greenwashing) 주의보

윤지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ESG가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며 ‘그린버블’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상당한 자금이 ESG 금융상품에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ESG 상품의 대다수가 ESG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일부 금융 회사가 ESG를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ESG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 및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그린워싱의 리스크 인지 및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ESG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ESG투자(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점 부각^[1]

- ESG가 최우선 경영의제로 떠올랐으며,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은 글로벌 ESG투자자산 규모가 '20년 \$35조에서 '30년 \$130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거래증권사·위탁운용사 평가시 ESG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며, 향후 전체 투자자산의 50%이상 ESG에 투자 하겠다고 발표
- 이러한 상황에서 ‘무늬만 ESG기업 및 투자’를 의미하는 그린워싱(Green+White Washing) 현상이 증가하면서 ESG 확대트렌드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
 - 그린워싱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ESG 성과를 허위 공시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ESG로 분류하는 등 ESG를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행위를 통칭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린워싱’은 분류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 Deutsche Bank 계열 운용사인 DWS에서 ESG기준에 부적합한 펀드를 ESG상품으로 분류하여 ESG투자규모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21.8월 독일과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
 - DWS는 2020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전체 운용자산(€9,000억)의 약 50%정도가 ESG자산이라고 발표하였으나, DWS의 前지속가능성 책임자는 DWS가 적절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하며, ESG펀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발
- Blackrock의 지속가능투자 부문 CIO Tariq Fancy 역시 '21.6월 ESG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기업, 패스트 패션 기업을 ESG펀드에 편입하는 일이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발언
 - Vanguard는 일반 TechFin ETF를 ESG로 명칭만 바꾸어 수익률을 제고

[1] Investor scepticism on ESG points to a maturing market(FT, 2021.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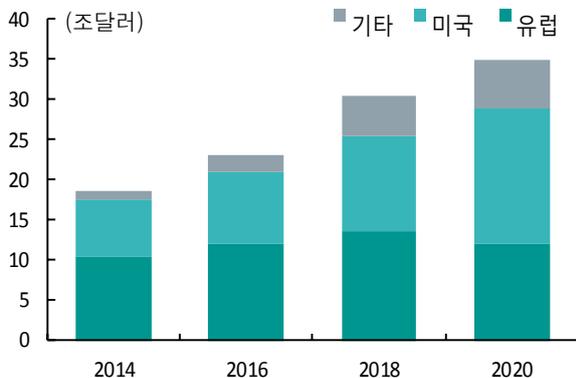
■ 그린워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ESG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부터 기인

- 현재 ESG규제 선도 그룹이며 특히 他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인 EC마저도 ESG의 방향, 후속 가이드라인 관련, 공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음
 - '20.3월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보고서(SFDR)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시행('21.3월)이후 대다수의 ESG펀드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보완이 필요
- 한편 일부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ESG 관련 규범 내 세부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실행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ESG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 특히 기준과 규제 미비로 내부 ESG 프로세스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ESG활동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

■ ESG가 글로벌/국내 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ESG규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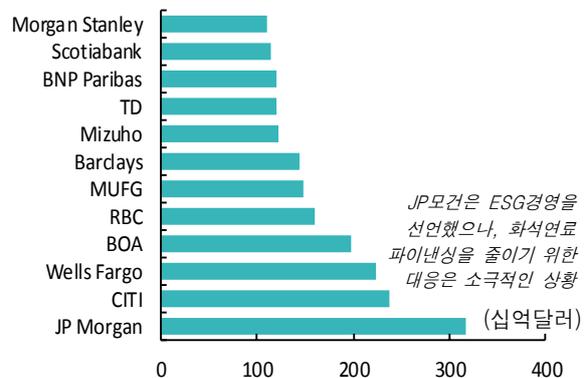
- ESG가 단순 유행이 아니라 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와 그에 따른 ESG펀드 등급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도 제고 요구
 -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 공개에 따른 논의가 진행
- 물론 ESG 정보의 특성상 해석과 가치판단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선호체계가 존재하므로, 평가 방법의 일관성보다는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방점을 둘 필요
 - 다만 ESG 중 'E' 요소는 녹색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녹색화를 측정할 수 있어 비교적 높은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S'와 'G'의 경우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
- 또한 그린워싱은 금융회사의 이미지 훼손 및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지므로, ESG검증을 위한 내부 체계 및 인력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Nordea Bank는 ESG펀드 투자한도 제한, 규정제정 참여 등으로 그린워싱을 예방 

■ 글로벌 ESG 펀드 자금 추이



자료 : FT

■ 글로벌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2016~20)



자료 : RAN

글로벌 녹색금융 확대에 따른 해양금융의 변화

김 종 현 연구원(jh.kim_@hanafn.com)

지난 10월 EU가 대규모 녹색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공공·민간 부문의 녹색금융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해운업 활황으로 신규 조선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해양금융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ESG 확산으로 해외 선주는 녹색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수익성 확보와 더불어 ESG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은행권과 해운사의 녹색금융 활용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관련 산업과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용을 통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ESG 논의가 확대되면서 EU가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등 녹색금융이 확산되는 모습

- EU는 120억 유로의 녹색 채권(2037년 만기)을 최초로 발행('21.10)하고, '26년까지 매년 350~450억 유로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할 예정¹⁾
 - EU 그린채권의 대규모 발행금액, 높은 유동성, 최고 신용등급(AAA)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발행물량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
- 녹색 채권 발행 규모는 공공, 민간부분을 통틀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최근 해운·조선업 활황으로 금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금융 내 녹색금융 논의도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을 비교적 잘 대응해 온 해운업계는 해운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 올해 해운사 영업이익은 컨테이너선 중심의 시장 호황으로 지난 10년 합산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등 선박금융 수요 확대
- 선박금융 수요 확대와 더불어 ESG, IMO 환경규제 속에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등 해운·조선업의 녹색금융 논의도 확대
 - 탄소 배출도가 높은 노후 선박의 교체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투자 등 산업 내 ESG 실천을 위한 자금투입 목적으로 해양금융 대출수요가 증가
 -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의 황산화물, 탄소 배출 제한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해운업 대상 환경규제 시행
 - 선주는 해양금융 관련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신청시 특정 ESG 성과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시 더 낮은 마진/이표율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¹⁾“EU의 그린채권 최초 발행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1.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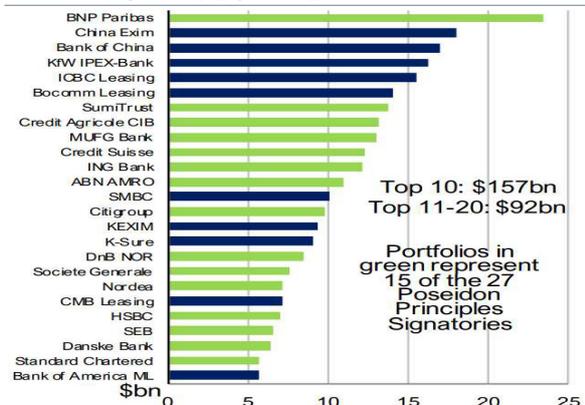
■ 해외 선주와 해양금융 취급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지속 가능성 연계 금융 참여도 증가

- ESG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녹색 채권, 대출 및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을 발행하는 해외 선주들이 증가
 - '21년 10월 기준 녹색 대출은 약 89.5억달러, 녹색 채권은 약 19.7억달러 기록
- BNP Paribas, Citi, HSBC 등이 가입한 포세이돈 원칙²⁾에 지난 6개월간 3개 기관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현재 27개)
 - 포세이돈 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비중은 총액의 50% 이상
 - 국내 KEXIM, K-SURE 등 해양금융 취급 기관은 포세이돈 원칙 가입에 미온적
- 한편, Standard Chartered 은행이 탈탄소를 위한 해운 투자에 최대 1.5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해양금융 시장 내 녹색금융 수요는 확대될 전망

■ 국내 금융사와 해운·조선사도 ESG 강화에 따른 녹색금융 활용 및 대응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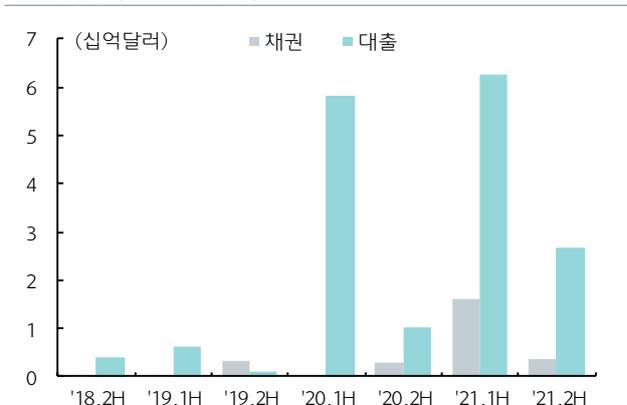
- 최근 국내 해운사의 녹색 채권(500억원 규모) 발행 공모에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모이는 등 시장에서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해운사는 공모로 모집한 500억원 전액을 ESG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으로 친환경 선박연료(LNG) 보급선 도입 등 지속가능성장 목적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
- 국내 금융사는 ESG 평가의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포세이돈 원칙 가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 글로벌 공조 확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
 - 국내 해운사는 ESG 등급 인증 과정에서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MSCI에서는 최저 등급을 받아 국내외 평가기준의 상이성을 확인 

■ 주요 은행의 해양금융 포트폴리오



주 : 녹색 그래프는 포세이돈 협약 가입 금융기관
자료 : Marinemoney

■ 해양금융 내 녹색금융 추이



주 : '21.2H는 10월 말 기준
자료 : Clarkson

[2] 포세이돈 원칙이란 2019년 해양금융에 참여하는 일부 은행 간 자발적으로 출범한 협의체로서, 해운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해운업 대출 결정시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하도록 함

금리: 대외 이벤트 일단락, 국내시장 안정세 주시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미국채 금리는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개시했으나, 테이퍼링 종료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파월 의장의 스탠스로 장단기 금리차 축소 흐름이 완화되었다. 파월은 경기여건이 만족되고 일시적 물가상승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양대목표 조기 달성 시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채권시장은 당국의 개입에 힘입어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대외금리 흐름과 11월 금통위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 美 국채 금리는 11월 FOMC 이후 장단기 금리차 축소 흐름이 완화

- 美 9월 PCE가 4개월 연속 30년래 최고 수준(3.6% YoY)을 기록하고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11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테이퍼링 개시를 결정
- RBA(호주)의 YCC 정책 종료 및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24년→'23년) 시사, BOC(캐나다)의 QE 조기종료 등 예상보다 빠른 긴축 행보를 보임
- 그러나 ECB가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한 가운데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BOE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인상을 유보하는 등 일부 중앙은행은 상반된 행보
-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 견해를 수정하며 상승하기도 했으나, 美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 BOE의 완화적 결과로 하락

■ 국내 금리는 국채선물 매도세로 급등하였으나 당국의 시장안정 조치로 반락

- 국내금리 급등이 지속되자 기재부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결정하고, 한은은 단순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적극 진화 노력을
 -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와 글로벌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가 이어지며 3년물 금리는 '18년이래 처음으로 2%를 상향 돌파(10.27일)
-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다수 위원이 수요측 압력과 공급망 혼란 등 구조적 흐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우려하며 11월 금리인상 필요성을 피력
 - 특히 국내 물가가 주거비 등 구성항목 상 선진국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
- 시장금리는 심리혜손에 따른 패닉셀링으로 급등을 지속한 후, 정책당국의 개입에 힘입어 큰 폭 반락(국고 3/10년(%): 11.1일 2.12/2.51 → 11.5일 1.94/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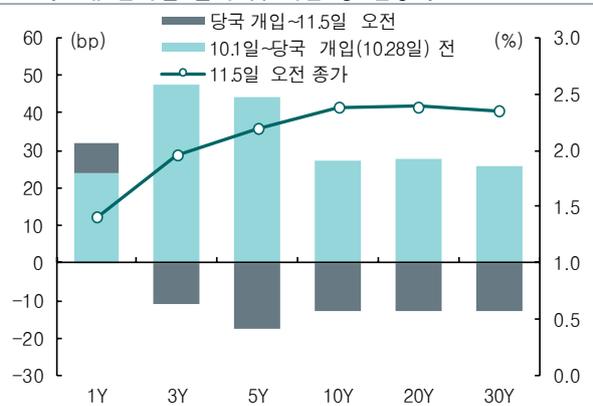
■ 11월 FOMC, 테이퍼링 개시했으나 테이퍼 종료→기준금리 인상 연결에는 선긋기

- 11월 FOMC에서 연준은 당월부터 양적완화(매월 국채 \$800억, MBS \$400억 매입) 규모를 매월 \$150(국채 \$100억 및 MBS \$50억)씩 줄이는 테이퍼링을 결정
 - 연준은 일정 규모의 매입 감소 유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향후 경제 전망의 변화를 고려해 자산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
-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으나, 경제 재개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 우세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 다만 FOMC 성명서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한 ‘일시적’ 표현을 ‘일시적이 라 예상되는’으로 수정하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을 인정
- 또한 파월은 완전고용이 내년 하반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리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으나, 경기여건이 만족되고 일시적 물가상승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인내심(patient)’을 가질 것을 강조
-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인내심’을 강조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화 및 완전고용이 조기 달성될 경우,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우세

■ 국내 채권시장 심리가 개선되었으나, 대외금리 흐름과 11월 금통위 결과 주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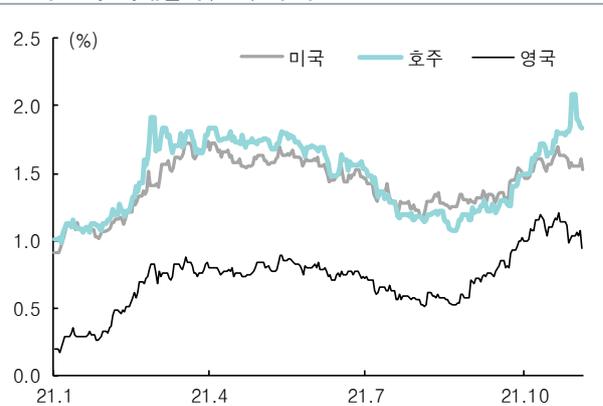
- 최근 국내금리 상승을 유도한 아시아 채권시장 약세가 다소 진정되었으며, FOMC 등 이벤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외발 상승압력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제한적
 - 특히 호주 10년물 금리는 YCC 종료로 급등했으나, 양적완화 프로그램 유지(22.2월 까지) 결정이 완화적으로 해석되고 BOE의 완화적 기조 영향으로 반등
- 국내 채권시장 심리가 당국의 개입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안정세 지속 여부는 대외금리 흐름과 11월 금통위 결과에 좌우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1.85%~2.05%, 2.30%~2.50% 범위로 전망 

■ 국고채 만기별 금리 및 기간 중 변동폭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주요국 국채금리(10Y) 추이



자료 : Bloomberg

외환: 인플레이 우려는 낮아졌으나, 또 다시 미국 우위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중국발 리스크가 완화되며 한달 반만에 1,160원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고 국내 주식 및 국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심화되며 1,180원대로 반등하였다. 당초 '백신보급 이후 신흥국의 순환적 반등'을 기대하였으나,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에 따른 부(-)의 영향이 신흥국 경제에 보다 집중되면서 미국 중심의 자본흐름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당분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70~1,195원의 등락이 전망된다.

■ [원/달러 환율] 1,160원대로 하락한 뒤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며 1,180원대로 반등

- 원/달러 환율은 중국관련 리스크가 진정되고 조선업체 수주에 따른 역외 선물환 매도가 출회되며 한달 반만에 1,160원대로 하락
 - 한편 한국 10월 수출은 YoY +24.0%를 기록하였으나, 수입(YoY +37.8%)이 큰 폭 증가하며 무역수지(16.9억달러)는 전월(42.0억달러) 대비 상당폭 축소
- 이후 부진한 한국 GDP발표와 국내 주식 및 국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 심화, 달러화 강세 재개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로 반등
 - 한국 3분기 GDP(QoQ +0.3%)는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예상치(+0.6%)를 하회

■ [국제 환율] 미국과 기타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가 높아지며 달러화는 재차 강세

- 달러인덱스는 부진한 미국 3분기 GDP발표에도 불구하고 FOMC 경계감 속에 방향성 부재. 이후 FOMC의 시장 기대수준 테이퍼링 발표로 시장영향이 제한된 반면, 고용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달러인덱스는 94pt를 상회
 - 미국 3분기 GDP는 QoQ +2.0%로 컨센서스(+2.6%) 및 이전치(+6.7%) 하회
 - 11월 FOMC에서는 이달부터 매월 150달러씩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발표하였으나, 동시에 파월의장은 테이퍼링이 금리인상 시그널이 아님을 강조
- 유로화는 CPI 등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유로당 1.16달러를 상회한 후, ECB의 완화적 기조 지속 발표로 유로당 1.15달러대로 반락
 - 유로존 10월 CPI(YoY +4.1%)가 13년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ECB에서는 금리 동결 및 PEPP매입속도 유지를 통해 완화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 위안화는 달러채 이자지급 소식 이후 중국 CDS가 안정되는 등 부채리스크가 완화되며 장중 6.38위안대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강달러 영향 속에 일부 반등

■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실질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

- 미국 증시대비 국내 증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국내투자자들의 한국 비중 축소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국내증시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7년만에 재추진하기로 발표하여 주목
- FTSE 기준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MSCI의 경우에는 2008년 선진국 지수 예비명단(Watchlist)에 들어간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년 탈락
 - ①원화의 제한된 환전성(역외 환율 시장 부재) ②외국인 등록 시스템의 경직성 ③금융투자상품의 가용성(거래소의 데이터 사용 독점권) ④영문공시자료 부족 ⑤글로벌 기준과 상이한 배당지급 방식 등 시장 접근성 기준에 미충족
-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시 ①시장변동성 축소를 통해 자본시장 안전성 제고 ②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③EM잔류시 발생하게 되는 중국발 장기 수급 악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대 쟁점은 역외 환율시장 허용. 그러나 외환위기를 경험한 당국은 환율 관리 권한을 고수하고 있어 당국의 실효성 있는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 MSCI 기준 한국의 외화 거래자유화 평가는 칠레, 중국 등보다도 하위

■ 인플레이 및 미국채 금리 상승 경계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170~1,195원 등락 전망

-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제 부(-)의 영향이 선진국 대비 신흥국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강달러 압력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
- 차주 美고용 및 물가지표, 차기 연준의장 파월 지명 여부, 中 19기 6중전(11.8~11일)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1,170~1,195원에서 등락할 전망 

■ 유로/달러 환율과 단기금리차(미-독)



자료 : Bloomberg

■ MSCI지수 추종자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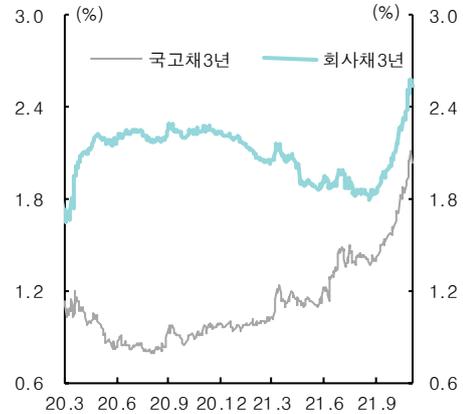
구분	금액(십억달러)
ACWI	3,331
EAFE	1,404
EM	1,304
World(DM)	2,565
USA	433
Europe	592
Asia	814
Other	1,690
전체	12,133

주: EM시장규모 대비 한국 추종자금 규모가 DM의 경우보다 큰 편이나 DM승격시 장기적으로 비중 및 수급 기반 확대 기대 가능
자료 : MSCI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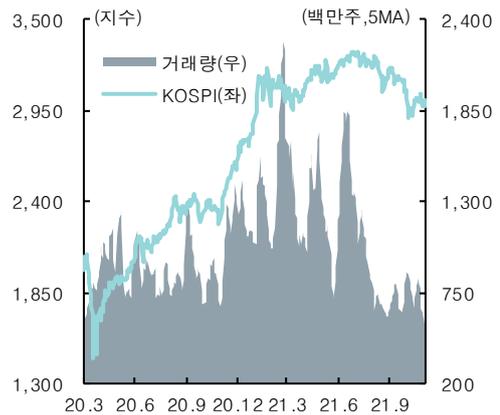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2.21	0.98	1.36	1.48
9월말	0.92	1.04	1.35	2.05	1.59	1.93
10월 29일	0.76	1.12	1.65	2.57	2.10	2.41
11월 01일	0.74	1.12	1.67	2.58	2.11	2.38
11월 02일	0.72	1.12	1.67	2.54	2.04	2.30
11월 03일	0.68	1.12	1.67	2.54	2.04	2.29
11월 04일	0.70	1.13	1.69	2.54	2.04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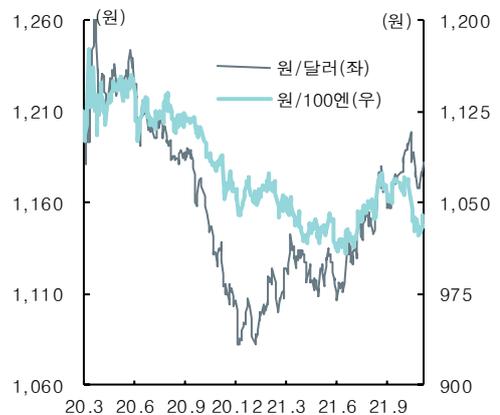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9월말	3,068.8	149,429	886	372
10월 29일	2,970.7	110,357	546	-8,058
11월 01일	2,978.9	94,108	475	-3,562
11월 02일	3,013.5	96,630	526	3,224
11월 03일	2,975.7	124,383	659	-4,470
11월 04일	2,983.2	146,585	772	3,542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9월말	1,184.0	1,063.3	183.6	1371.0
10월 29일	1,168.6	1,025.2	182.4	1351.0
11월 01일	1,176.5	1,032.0	183.9	1365.2
11월 02일	1,174.4	1,030.4	183.5	1359.7
11월 03일	1,181.6	1,036.2	184.4	1371.9
11월 04일	1,182.6	1,039.3	184.8	13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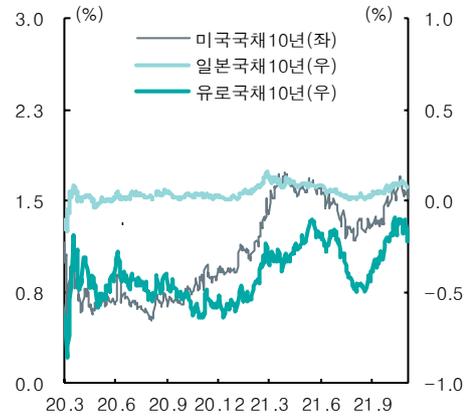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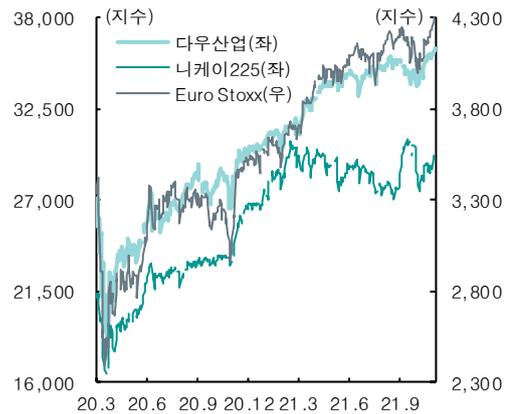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9월말	0.08	0.13	0.28	1.49	0.07	-0.20
10월 29일	0.08	0.13	0.50	1.55	0.10	-0.11
11월 01일	0.07	0.14	0.50	1.56	0.10	-0.10
11월 02일	0.08	0.15	0.45	1.55	0.08	-0.17
11월 03일	0.08	0.14	0.47	1.60	0.08	-0.17
11월 04일	0.08	0.14	0.42	1.53	0.07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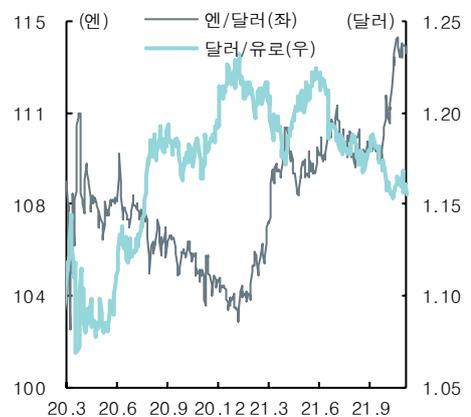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9월말	33,843.9	29,452.7	3,568.2	4,048.1
10월 29일	35,819.6	28,892.7	3,547.3	4,250.6
11월 01일	35,913.8	29,647.1	3,544.5	4,280.5
11월 02일	36,052.6	29,520.9	3,505.6	4,296.2
11월 03일	36,157.6	-	3,498.5	4,309.6
11월 04일	36,124.2	29,794.4	3,526.9	4,333.3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9월말	111.27	1.158	75.9	1,757.0
10월 29일	114.01	1.156	82.6	1,783.9
11월 01일	113.99	1.160	82.0	1,795.8
11월 02일	113.92	1.158	83.3	1,789.4
11월 03일	113.98	1.161	81.9	1,763.9
11월 04일	113.73	1.155	-	1,793.5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11월 6일 인쇄

2021년 11월 8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윤병수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